

'불필요한 보도블럭 교체 폐지' 최고 혁신사례

전주시, 행정안전부 주관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공모서 보도블럭 설치·관리 방안 선정

전주시가 낭비성·관행적 예산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 '불필요한 연말 보도블럭 교체공사 폐지' 방침 등이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전국에 소개된다.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평가·선정한 '제2회 정부 혁신 최초·최고'에서 시의 보도블럭 설치·관리 방안이 국내 최고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최초·최고사례 공모는 행정안전부(부처·지자체·교육청)와 중앙·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보도 설치·관리 2곳(서울·전북 전주)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1곳(경기 성남)을 국내 최고 혁신사례로 꼽았다.

이는 지난해 11월 우범기 시장이 지시한 '불필요한 연말 보도블럭 교체공사 관행 폐지' 방침과 전주 부성길을 테마로 한 사람 중심 '객사길' 보행환



보도블럭 현장점검에 나선 우범기 전주시장. <사진=전주시청 제공>

경 개선사업' 등이 전국 우수 사례로 평가받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선 8기 첫 해인 지난해 시는 우 시장의 시정 방향에 따라

낭비성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관행으로 시행하던 보도 교체공사를 근절했고, 그 여유 재원을 올해 신규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꼭 필요한 곳에만 시민

의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주 부성 하저길 조성 시 풍남문 삼벽 패턴 디자인을 차도 포장용 석재에 입혀 객사길 내 전주 부성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각시켰다. 우수 공법을 도입해 강도 높고 투수율이 좋은 보·차도용 특수블럭을 시공함에 따라 보도 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사례들을 정부혁신 누리집에 소개하고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해 혁신성과가 널리 전파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실업공단, 안전하고 깨끗한 월드컵경기장 물놀이장 운영 최선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한바탕 전주 여름철 물놀이장이 개장한 가운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실업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단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관련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2일 밝혔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동시 수용 인원을 700명으로 제한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한 비상구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출입구와 비상구 통로 등에 안전 매트를 설치했다.

또 법적 기준에 맞춰 안전관리자와 간호 요원 등의 운영 인력을 현장에 총 15명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시설물 점검과 상시 교육을 통해 비상 상황 대응 요령 등을 숙지도도록 했다.

공단 또한 자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수용 인원 관리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환경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2시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물놀이장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하고, 조립식 수영장 욕수는 주 2회 교체하며 오염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수질 현황은 매 회차마다 현황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이날 15일 까지 28일간 무료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은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올여름 안전하고 깨끗한 월드컵경기장 물놀이장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판식 개최

전주시립요양병원, 전북권 공립요양병원 최초 치매안심병원 지정... 본격 운영

전주시는 2일 전북권 공립요양병원 중 최초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전주시립요양병원에서 본격 운영을 알리는 현판식을 열었다.

이날 현판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국회의원, 전주시의원, 전북도청 및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안심병원 지정 경과보고 및 전북권역 중 최초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축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전주시립요양병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북권역 공립요양병원 중 최초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로 인한 폭력과 망상 등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상징이 있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치매 전문병동 등 치매환자 전용 시설과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전문 의료인력을 갖춰야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총 예산 18억원을 지원받아 병원 내 1천883㎡ 규모의 공간에 2개 병동 96병상 규모로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했다. 입원병실(6인실 이하, 흡연기, 산소발생기, 환기시설)



전주시가 2일 전북권 공립요양병원 중 최초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전주시립요양병원에서 본격 운영을 알리는 현판식을 연 가운데 우범기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 치매환자 전용 프로그램실, 상담실, 심리안정실, 공용거실 등 치매환자의 안전과 효율적 돌봄을 위한 치매친화적 시설과 장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치매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주시립요양병원에 신경과와 전문의와 치매전문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 30명을 배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립요양병원 이 전북권역 공립요양병원 중 최초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치매환자들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온열질환자 400여명 속출

새만금 잼버리, 예상 못한 폭염에 '고비'

그늘쉼터 마련·덩굴터널 조성·폭염 대피 지정 장소 지정에도 역부족

조직위, 허브별 클리닉에 추가 냉방 장치 설치 등 온열 증상 완화 조치키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지난 1일 본격 대단원의 막이 오른 가운데 시작부터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폭염이라는 악조건을 만났다.

2일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 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잼버리 야영장 부지 내에서 400여명의 참가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33도를 웃도는 습한 날씨와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 잼버리 조직위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정신력이 대단하다"고 극찬했지만 대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나라의 폭염은 정신력을 뛰어넘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끼리 이날에도 오후 4시까지 온열질환으로 인해 대원 11명이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날 31일

부터 3일간 치료를 받기 위해 잼버리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59명에 달한다.

경증 환자까지 포함하면 잼버리 부지 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00여명이 넘는다. 잼버리 조직위는 "일시적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 등 경증 환자가 대부분이며, 중증 환자로 관리되는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은 사전에 스카우트 교육 등을 통하여 온열질환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이에 능숙한 지도자와 동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에 따라 대부분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잼버리 조직위는 온열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그늘쉼터 1722개를 마련하고 덩굴터널(57개동)을

구성, 폭염이 극심할 경우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 실내 체육관, 공원, 숲 등 영의 6개소를 지정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잼버리 조직위는 허브별 클리닉에 추가 냉방 장치를 설치하고, 대형 물탱크도 허브별 1개씩 추가하는 등 의료시설을 방문하는 환자의 온열 증상 완화를 위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구할 방침이다.

또 참가자 대표단 등을 대상으로 전체 공지를 통해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폭염 시의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많은 활동을 요하는 과정활동 등은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영지 내 셔틀버스 운영 간격도 현재 30분에서 15~20분 내외로 단축하여 오랜 시간 버스 대기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뉴스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날 31일과 이달 1일 이틀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익산시의 수해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린 군인장병 및 자원봉사자 등 600여명의 점심 도시락 제공을 위해 'IBK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지원했다.

익산 수해복구 현장에 도시락 전달

전주자본센터, 'IBK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지원

전주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전북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익산시 이재민들의 힘이 되고자 온정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7월 31일과 8월 1일 이틀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익산시의 수해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린 군인장병 및 자원봉사자 등 600여명의 점심 도시락 제공을 위해 'IBK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지원했다.

이날 센터는 조속한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는 복구 인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불교전북교구

봉곡회(회장 안현진) 등 봉사자 60여 명과 뜻을 모아 정성껏 준비한 불고기과 오징어초무침 등 점심도시락 6000분을 전달,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최이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최근 폭염으로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주는 전주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국 어디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 및 장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시민참여형 정원조성 행사 개최

전주시가 도심 속 정원 공간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는 '2023 정원드림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식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시는 2일 전주월드컵광장에서 정원드림프로젝트에 참여한 정원전문가, 취·창업을 준비하는 전공자들과 시민정원사 등이 함께 정원을 이해하고 녹색정원을 조성하는 식재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참가자들, 멘토작가, 도시숲정원관리인, 초록정원사, 꿈의정원사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조성사업인 '23 정원드림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특히 지원사업인 정원드림프로젝트는 정원전문가, 취·창업을 준비하는 전공자, 도시숲정원관리인, 시민정원사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참여형 정원 조성 프로젝트로 전주시를 포함한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주광역시 프로젝트는 남도정원연구소가 운영사로 선정돼, 전주월드



전주시 2023 정원드림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이 시민참여형 정원조성을 하고 있다.

컵경기장(3개소)과 전주역사박물관(2개소) 등 전주광역시 5개 대상지에 정원 관련 전공자로 구성된 5개 팀이 정원작가들의 멘토링을 거쳐 실습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참여 팀들은 정원설계에서 시공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정원작가 멘토링을 통해 정원분야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도시 중심부에 직접 조성한 정원이 존재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실업공단, 잼버리 행사장 '이지콜' 택시 지원

막이 오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주시실업공단(이사장 구대식)이 특별운송수단을 지원한다.

공단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에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이지콜' 택시를 총 3대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행사 참가자 중 영내 셔틀버스 탑승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참가자 중 휠체어 이용자는 3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3일과 7일, 11일 총 3일 차량 각 1대씩을 지원해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누구도 불편을 겪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실업공단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에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이지콜' 택시를 총 3대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전주시실업공단 제공>

한편, 지금까지 공단은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수시로 특별운송수단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날과 어린이날, 가정의 날, 각종 선거 등 특별한 날에 무료 운행 등 교통약자 이용객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